



과거 식품 선택의 기준은 ‘맛과 가격’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 공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당류·나트륨·단백질 함량 등 성분표부터 살핀다. ‘건강’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취향이나 프리미엄 옵션이 아니라, 식품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라면과 과자, 음료와 간편식까지 건강을 전제로 설계되도록 만들며 식품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에 맞춰 기업의 전략과 대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건강 챙기는 대한민국 식품 저·저 흐름 확산

〈저당·저칼로리〉

건강을 파는 시대

〈上〉맛·가격 보다 성분표

한국 사회에서 식품은 이제 건강 관리의 출발점이 됐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일상화, 자기 관리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등장 속에서 건강한 식품이 각광받고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84만 명으로 전체 인구 약 5111만 명 가운데 21.21%를 차지했다. 이미 2024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일상 과제가 됐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인구 21% ‘초고령사회’ 고혈압·당뇨 등 전국민 일상과제

20대의 절반은 식품 성분표 확인 ‘저당 간식’ 메가 트렌드 자리잡아

이같은 인구 구조 변화는 소비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처럼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좌우되 기보다 성분과 원재료, 실제 효능을 따지는 ‘정보 기반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의 약 90%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 성분, 효능, 후기 등을 사전에 검색·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가격보다는 성분 함량과 과학적 근거, 브랜드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젊은 세대에서도 확인된다. 단기적인 다이어트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양성분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20대에서 96%를 넘어섰다. 성분표를 ‘자주 또는 항상 확인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육박해 건강 관리가 특정 연령대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통 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치로 알 수 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저당·저칼로리·제로 슈거 제품군 매출은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S25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주일간 매출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15% 이상 증가했고 저당·제로 슈거 간식 매출은 20% 넘게 늘었다. 샐러드, 단백질 바, 구운란, 닭가슴살, 단백질 음료 등 이른바 ‘관리형 식품’ 전반이 동반 성장했다.

저당 간식은 이미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저당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라스윗의 ‘저당 팝콘 시리즈’는 출시 직후 월 매출 30억 원을 돌파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과거 허니버터칩 신드롬과 비교될 만큼 이례적인 성과로 ‘건강을 고려한 간식도 충분히 대중적인 히트상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분석이다.

저당·저칼로리 간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제로 편의점’과 무인 헬스푸드 매장도 대학가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일부 브랜드는 가맹 사업 개시 수개월 만에 두 자릿수 점포 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유통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처에 따르면 저당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99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을 고려한 식품 소비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식품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맛있는가’보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더 중요한 구매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코스피 10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코스피가 전 거래일(4723.10)보다 74.45포인트(1.58%) 상승한 4797.55에 마감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42.18)보다 8.98포인트(0.95%) 오른 951.16,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77.5원)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정체성’ 당락 갈랐다… LG AI연구원 1위

과기부, K-AI 국가대표 1차 평가 총 5개 단체 중 네이버·NC ‘탈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AI’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1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회비가 엇갈린 결과를 내놔다. LG AI연구원이 전 항목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기술 성과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프롬프트 스킴’로 대표되는 독자성과 AI 주권을 얼마나 충실히 구현했는지가 생존을 가른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했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네이버,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등 5개 컨소시엄에

대한 1차 평가를 종료하고 탈락 대상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진행한 이번 심사는 벤치마크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평가를 합산해 이루어졌다.

이번 심사는 LG AI연구원의 압승이다. LG는 벤치마크(33.6점), 전문가 평가(31.6점), 사용자 평가(25점 만점) 전 항목에서 최고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2차 단계 진출권을 따냈다. 참여한 5개 모델 모두 미국 ‘에포크 AI(Epoch AI)’의 ‘주목할만한 AI 모델’에 등재되는 등 기술적 성과는 입증됐으나, 정작 탈락의 칼날은 기술력이 아닌 ‘정체성’에서 휘둘러졌다.

이번 심사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탈락했다. 네이버는 텍스트와 음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 기술을 앞세워 점수 상으로는 상위 4개 팀에 포함됐으나, 심사위원회는 네이버의 모델이 프로젝트의 근간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공모 당시부터 해외 모델을 미세조정(파인튜닝)한 파생형이 아닌, 가중치 초기화부터 사전 학습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모델만을 인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전문가 평가단은 네이버가 제출한 테크니컬 리포트와 훈련 로그를 분석한 끝에 독자적 구현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5연속 2.50% ‘동결’

한은, 수도권 집값 등 리스크 여전 호조·부진 맞물린 ‘K자형 회복’ 유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성장 개선세와 물가 안정 흐름을 확인하면서도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집값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현 수준을 유지하며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의 의견

이 일치했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1.8%) 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면서도, 반도체 경기 상승세 확대 등 상방 리스크가 다소 커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보기술(IT) 호조와 비IT 부진이 맞물린 ‘K자형 회복’이 이어지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는 국제유가 안정세 등으로 점차 2.0%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도 각각 2.1%, 2.0% 전망에 대체

로 부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높아진 환율이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금융·외환시장과 주택시장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였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난해 말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연율 1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의총서 “한동훈 제명 철회해야” “지금은 내 탓 할 때”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 만나 방산협력 논의

▲與 ‘검찰개혁’ 의원총회 개최…정청래 “기소는 검사, 수사는 경찰에게”
▲이준석, 2차 종합특검에 “민주당 전용 특수부 만들어”

▲‘김병기 수사무마 의혹’ 관계자 줄소환…前동작서 팀장·보좌진 조사
▲與 20일 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각계 전문가 초청